

완도 보길도 예송해수욕장 블루플래그 인증 준비

국내 최초 인증받은 신지명사십리 해변 이어 2호 획득 나서 올해 총 7회 수질 검사·137개 평가 항목 충족 시 인증 획득

완도군이 보길도 예송해수욕장에 2021 블루플래그 인증을 받기 위해 사전 평가 보고서 작성 등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블루플래그 인증이란 덴마크 코펜하겐에 위치한 환경교육재단(FEE)이 안전, 환경교육, 수질, 주변 환경 등 4개 분야, 29개 평가 항목과 137개의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해수욕장에 부여한다.

1985년 유럽에서 시작돼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현재 50개국의 해수욕장과 마

리나가 블루플래그 인증을 취득했으며 국내에서는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이 유일하게 지난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신청서 작성에 앞서 국제환경교육재단(FEE) 한국사무소 관계자와 완도군청 관계 공무원들이 보길도 예송해수욕장을 찾아 사전 점검을 했다.

보길도 예송해수욕장은 모래 해변이 아닌 청명석이라 불리는 갯돌로 이루어진 길이 약 2km, 폭 50m의 해변이다.

갯돌은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갈 때면 황홀한 해조음을 만들어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한다해 백색 사운드의 향연장으로도 불린다.

해변을 둘러싼 수령 200~300년 된 상록수림(천연기념물 제40호)과도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 경관이 아름답기로 정평이 나았으며, 예송해수욕장을 품고 있는 보길도는 역사문화 자원은 물론 산림과 해양치유 자원이 산재해 있는 국내 최고의 섬 정원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다.

섬 곳곳에는 세연정 등 고산 운선도 유적지와 동백 군락지,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약 5.2km의 어부사시사길과 수평선을 바라보며 명 때리기 좋은 보육리 공룡알

해변 등 산림과 해양치유, 관광자원의 보고(寶庫)이다.

예송해수욕장을 직접 찾은 국제환경교육재단 한국사무소 강대영 이사는 "예송해수욕장은 천연기념물(40호)인 상록수림을 배경으로 갯돌로 이루어진 특색 있고 빼어난 자연 경관과 육안으로도 청정함을 직접 느낄 수 있는 해변의 수질 상태, 주변의 풍부한 역사 문화 관광자원은 블루플래그 인증 평가에 있어 큰 장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예송해수욕장이 블루플래그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금년에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5회의 수질 검사와 개장 전후 각 한 차례씩 총 7회의 수질 검

사를 통과해야 하며, 내년까지 모두 137개의 평가 항목을 충족해야 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블루플래그 국내 1호인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에 이어 예송해수욕장이 제2호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고, 2021년 완도방문의 핵심공 추진에 기여함은 물론 청정 완도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 D해수욕장이 블루플래그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완도군이 국내 최초 블루플래그 인증에 이어 2호 인증까지 선점할 수 있을 것인바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완도=박나영 기자 ny4040ny@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해남군 문화예술회관이 보다 편리한 시설로 새롭게 태어난다.

해남군은 지난 2019년도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억8천만원을 포함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1층 로비에는 리딩데크를 설치해 휴게공간을 확보하고, 이동식 칸막이를 설치해 접근성이 용이한 전 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2층의 기존 전시설에는 강의실과 동아리방, 다목적 회의실 등이 설치된다.

지난 2002년 개관 이후 군민의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해오고 있는 해남군 문화예술회관은 조성된 지 19년이 경과해 시설 노후로 인한 이용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리모델링을 통해 공연, 전시, 문화강좌 등 다양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을 재배치하고, 노후 공간을 시설 개선해 군민들이 쾌적한 시설에서 편리하게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리모델링 사업은 9월중 완료 예정이며, 1·2층 공사가 마무리되면 추가로 도서관 리모델링을 추진해 3층에는 어린이자료실, 4·5층에는 디지털 자료를 겸한 종합자료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해남=김대수 기자 abc6789@

장흥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모교육 집단상담

장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김은주)는 최근 부모교육 집단상담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집단상담은 본 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청소년 가정 중 자녀 양육의 어려움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모 6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양승희 강사(꽃잎다치유성장연구소 소장)를 모시고 '건강한 가족, 건강한 자녀'란 주제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자기 이해를 통한 자기 효능감 향상-가족 상호 이해' 작업을 통한 대인관계기술 향상-의사소통과 역할극 상담을 통한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순으로 이루어진 이번 강의는 가족관계에서 기인한 미해결감정을 해소해 평화

로운 가족관계 기반을 조성할 때 자녀 또한 그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었다.

참가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며 마음으로 자녀를 이해할 수 있게 됐고, 나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며 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앞으로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장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전화 1388운영, 개인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장흥지역청소년들을 위해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장흥=김정근 기자 kimjg@



고흥군은 지난달 25일 농림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통계청이 공동 발표한 귀농인 통계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도에서 농촌으로 이동한 귀농인이 전국에서 고흥군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 2019년 도시민 귀농인 '전국 1위'

민선 7기 인구 감소 극복 맞춤형 정책 성과로 나타나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난달 25일 농림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통계청이 공동 발표한 귀농인 통계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도에서 농촌으로 이동한 귀농인이 전국에서 고흥군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통계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상호 연계해 작성한 행정 통계자료로써, 전국 상위 5개 지역은 전남 고흥군, 경북 의성군, 경북 상주시, 전남 나주시, 전북 고창군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적으로는 지난 2018년 보다 귀농인이 4.6% 감소했지만 고흥군은 4.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흥군은 민선 7기 들어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과를 신설하고 고흥사랑 애 청년유턴·아이행복·귀향(귀농·귀어) 귀촌 3대전략 50개 시책을 담은 인구정책 5개년(2018~2022년) 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고흥인 청년유턴 정착 장려금과 부모 가업승계 지원, 귀농·귀촌 집들이비와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청년도전 창업 지원, 원주민과 갈등해소 프로그램 운영, 영농기술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정책으로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동안, 고흥군에서는 귀농·귀촌 희망자 사전교육과 현장체험을 위해 폐교를 리모델링해 '귀농·귀촌 행복학교'를 만들어 전

국 최초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울, 부산, 광주 등 고흥향우회와 고흥사랑 귀향·귀촌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 aT센터 등 도시민 귀농·귀촌 홍보, 고흥사랑 귀농·귀촌 행복 SNS 홍보단 활동, 귀향·귀촌 원스톱 상담서비스 제공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 결과 민선 7기가 시작된 이래 1년 10개월 동안 1천745기 2천245명의 인구가 고흥으로 전입돼 대서면 인구(2천315명) 만큼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저출산, 인구의 자연감소, 인구 유출 등으로 아직도 총 인구는 감소하고 있어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주요 현안으로 남아 있다.

/고흥=이문석 기자

보성, 전남 세외수입 징수 종합평가 1위

목표액 대비 203% 징수율 달성...조세 정의 실현

보성군이 지난달 29일 전남도가 실시한 2019년도 세외수입 징수 종합평가에서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19년 7억2천900만 원의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며 목표액 대비 203%의 징수율을 달성했다.

이는 목표액(3억4천800만 원) 보다 3억8천100만 원을 더 징수한 것으로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군은 체납액 일제정리계획을 수립하고 집중 징수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고액체납액 및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과 변호관 영치를 통한 자동차관련

과대료 징수에 중점을 두고 징수를 추진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다양한 체납처분 기법을 활용해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철저한 징수 방안을 모색해 완전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등에 근거해 체납처분 유예 및 징수 유예 등의 행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보성=김용욱 기자 ywkim@

진도군, 농수특산물 기획전 개최

진도군은 오는 2일까지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수도권 고객을 대상으로 진도 청정 농수특산물 소비촉진과 홍보를 위한 농수특산물 홍보·판매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청정 진도군에서 생산된 김, 미역, 멸치를 비롯 반 건조생선, 홍주, 울금 등 50여 종의 청정 농수특산물을 특별 판매한다.

특히 진도군수 품질인증 받은 농수특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등 유통과정을 축소해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될 계획이다.

또 이번 행사에서는 진도군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특산물 시식·시음, 사은품 증정 등의 행사를 개최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군은 특별 판매 행사를 통해 수도권 소비자에게 진도의 우수한 농수특산물을 홍보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판로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진도군은 코로나19 사태로 전환된 언택트 소비트렌드에 맞춰 진도군 직영 공식 쇼핑몰인 진도아리랑몰도 운영중이다.

/진도=맹환근 기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수칙

주요증상
발열, 폐렴, 호흡기증상
(기침, 인후통 등)

행동수칙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상담하기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하기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1339
상담하기

'코로나19' 우리 모두 힘 모아 이겨냅시다!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우고 계신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전남도민일보
시민법인 전국기자협회